

절대타락의 현장에 절대복음의 망대를 세운 고린도교회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레위기 19:18, 고린도전서 13:4-7

정윤돈 목사님

- *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 고전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우리 나라와 가정과 후대들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원인과 뿌리를 깊이 알고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 천명, 소명, 사명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응답 받는 길도 행복하다고 하는 건 수준 낮은 행복이다. 내 뜻, 내 이익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제계 중간 중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주셨다. 서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일 학교를 맡아 친구들도 전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전라도 목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목포의 고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면서 눈 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중에 한 명을 양육하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가 자살을 하더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근본을 찾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갈등되어 힘든 상황이 생기기니 제조제를 먹고 죽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전도했는데, 그 아이는 결핵약을 먹어 자살하려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지금도 자살예방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당시에는 몰랐다. 당시에는 왜 제계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질문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도록 하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번엔 하이브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라고 느꼈다. 그러니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살한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 크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나만 사랑하고 내 인기만 쫓는다. 어떤 평판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소속 연예인보다 사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라고 평하더라. 복음적인 일을 할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중에는 인간관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인간관계 못 하는 것도 나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항상 남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내 중심으로 하면 다 틀리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면 절대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다. 교회는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사역하고 치유하고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아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이다. 야구선수 1루타도 칠 수 있고 2루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다. 신앙도 그렇다. 1루타를 쳐서 겨우 나 혼자 사는 신앙일 수도 있다. 모두를 살리는 홈런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흑암도 꺾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까지 가야 한다. 성공할수록 문제가 많아진다. 부자가 될수록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류목사님을 바라본다. 류목사님도 문제와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는 절대사명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살아야 행복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문제를 이기면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 안의 많은 문제는 사실 참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는 참사랑을 알려 주고 있다. 가짜사랑이 너무 많다. 진짜 참사랑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부족해도 괜찮다. 깨닫기만 해도 인도하신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모님과 나라를 원망하지 마라. 살려라. 내 자신만 사랑하면 불행해진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절대망대에 도전하다가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목표 안에서 절대응답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고린도서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고린도는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타락과 방탕과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큰 신전도 있었고 신전 안에는 창기들이 있었다. 옛날에는 성관계를 할 때 풍요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러한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였다. 고린도교회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면서 문제도 많이 생겼다. 교회가 커지면 문제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를 지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어야 한다. 고린도교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캠프를 하던 중 예비된 산업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서 세워지게 된 교회였다. 이번 주에 홍콩, 마카오집회를 하는데 홍콩에 한 중직자 분이 다문화가 모이는 경비를 다 낸다고 하더라. 사도 바울이 산업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니까 고린도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하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행복하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불신자들의 잘못된 사랑도 집중해서 하면 응답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Heavenly Power 안에서 Talent와 Mission을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해야 한다. 고린도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크게 부흥하였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과 신앙적인 질문들과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을 준 내용이 고린도전서이다.

1. 고린도교회에 발생된 문제들과 질문들과 이에 대한 바울의 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고린도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편당을 나누어 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여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서 다 '나는 누구 편'하며 나누어 있었다. 사탄이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자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님들도 다 상대방에 대해 욕한다. 이간질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한다. 내 편이면 다 좋고 내 편 아니면 다 죽이고 이룬다. 복음 아니다. 세상정지다. 사탄이 개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교회의 분열에 대한 바울의 답이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준이 그리스도 되어야지 사람이나 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두 번째 문제는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고, 그리스의 철학적인 지식에 비하여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고 무식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고린도교회와 아테네가 가까우니까 아테네 지식인들을 불러 복음을 비웃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학자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별로 모른다. 한 부분만 평생 판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식과 전문인들이 죄로 인한 세상과 재앙, 불행과 전쟁, 사탄과 지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상과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끄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한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무식하게 복음만 전하라는 게 아니다. 다른 길 다 해야겠지만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과 행복의 길을 여시고 삶의 이유와 가치, 내세와 승리의 길, 진짜 문제와 해결의 내용까지 알려 주셨다. 이젠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 어렵지 않다. 지금 전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진짜 들어가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

(3) 세 번째 문제는 고린도 도시의 잘못된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급속도로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타락시키는 다양한 게 있었다. 당시에는 심지어 새엄마인 계모까지 취하는 음행이 있었다.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잘못된 행동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야지 인정하지 않고 뒤로 억울하다 한다. 진정으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 교회는 마지막 도피성이다. 교회 안에서 이권을 추구하고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갈 데가 없다.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4) 네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차라리 고발을 당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저한테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충분히 저도 문제되지 않고 맞고소를 할 수 있음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배워야 한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한다.

(5) 고린도교회에는 결혼까지 반대하는 지나친 금욕주의 문제도 있었다. 바울도 결혼을 안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란다. 교회 안에 참사랑이 필요하다.

(6) 또 고린도교회는 우상제물을 먹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거 다 안다. 그 모습을 보며 시험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하라. 심지어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해도 지옥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때문에 목표는 알고 도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행복해야 한다.

(7)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8)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을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반증하고 있다.

2.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중요한 요절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짓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만 계속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다.

(2)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다섯 가지 확신 중 승리의 확신에 대한 요절이다.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라.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셨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다.

(3)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에 대해 말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이 아니다. 속이는 것이다.

(4)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복음적인 참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5)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 안에는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 진짜 참사랑이다. 이것 가지고 현장의 후임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탐이 얻어냈던 인생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이 세상과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저희지만 말씀을 통해 답과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